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

- 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

김윤경*

〈차례〉

1. 서론
2. 미국헤게모니와 현대적 교양여성
 - 2.1. 건전한 경제관의 자본주의적 교양인
 - 2.2. 사회진출이 차단된 교양여성의 스위트홈신화
3. 교양의 젠더화 : 교양여성 담론과 문예
 - 3.1. 여성적 교양으로서의 문학과 예술
 - 3.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가정여성(domestic woman)의 발견
 - 3.3. 가정여성담론과 여성독자의 글쓰기
4. 교양여성담론과 새로운 독서시장의 형성
 - 4.1.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 4.2. 전문/아마추어 문예의 위계적 이원화
 - 4.3. 아마추어 여성작가의 등장과 상업적 성공
5. 결론을 대신하여 : 여성의 글쓰기, 그 통제와 균열의 지점

〈국문초록〉

이 글은 1950년대 문화엘리트의 주도로 형성된 교양여성담론이 미국문명의 유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는가를 살피는 한편, 교양여성의 유력한 수신방법으로 선택되었던 글쓰기와 독서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여성 일반의 독서와 글쓰기 경험이 교양여성담론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그 통제

* 동국대학교

와 규제의 담론에 가하고 있었던 균열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국가체제 형성기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이 단지 수동적 존재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욕망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능동적 주체였음을 밝히는 것이며, 1950년대 여성이 경험하고 있었던 근대의 복합적 양상을 살펴본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1950년대, 미국문명, 문화엘리트, 교양여성, 가정여성, 여성독자, 문예공동체, 여성지, 문학규범

1. 서론

“식사 중에는 같이 온 상대 편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 가면서 천천히 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못 먹을 때에는 쟁에 손가락을 얹으며 사양합니다.”¹⁾, “자세……반듯한 자세에 정성어린 집무”, “전화……공사(公私)를 구별해서 간단 명료하게”, “화장을 고치고 나서는 깨끗이 소제합니다.”²⁾, “혼자 보-이프렌드 집을 방문함은 지나친 대담”, “자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것은 지나친 친절”³⁾

위의 항목들은 195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교양지 『여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현대여성의 에티켓’들 중 일부이다. 같은 시기의 또 다른 여성지인 『주부생활』에서는 “시부모에게 안부편지 쓰는 법”, “타지에서 근무 중인 남편에게 편지쓰는 법”, “여학교 동창에게 편지쓰는 법”, “졸업을 앞둔 시동생에게 축하편지 쓰는 법” 등 구체적 상황을 설정한 『주부서한문 강좌』를 연재하고 있는데, 단순한 편지형식보다는 ‘점잖으면서도 다정한 어투나 태도’, ‘수신자에게 삼가야 할 말과 해도 좋은 말’ 등 편지를 매개로 한

1) 『양식(洋食) 에티켓』, 『여원』, 1955, 10.

2) 『직장여성 에티켓』, 『여원』, 1955, 11.

3) 『남녀교제 에티켓』, 『여원』, 1955, 12.

여성의 사교와 예의범절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여성의 사교나 사회생활에 관련된 행동양식은 1950년대 여성지에서 “현대여성의 에티켓”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대개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모델로 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한 서양식 식사예절, 남성과의 데이트 예절, 직장생활에서의 예절 등은 미국식 생활양식을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여성의 에티켓 또는 교양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티켓이 매너화·문화화와 같은 교양여성의 ‘행실’의 내용이었다면 교양여성의 ‘품성’은 여성적 정서의 발견과 훈련으로 이어졌다. 즉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의 고유한 정서와 심성을 규정하고 혼융함으로써 교양여성의 품행을 완성하였는데, 이때 여성적 품성으로 강조된 것은 ‘섬세함·심미적 감각·애정과 연민·모성’ 등이었다. 이러한 여성적 품성은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섬세한 감수성과 정서적 공감과 몰입 등은 이러한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여성의 교양적 자질이였다. 이와 같은 교양여성담론은 1950년대 여성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미국의 선진적 제도와 문화를 적극 수용한 문화엘리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명랑·검소·자상함·합리성·심미적 안목’ 등 이상적인 교양여성의 미덕으로 제시되던 내용들은, 문화엘리트들의 미국방문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미국여성들의 미덕과 관련된다. 미국을 직접 방문한 필자들은, 미국 여성이 남편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사교모임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현명한 관리자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공인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미국 여성의 선진적인 생활양식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도화한다면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선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원』, 『주부생활』과 같은 1950년대 여성지는 필진과 편집진의 대부분이 문인, 대학교수,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의 문화엘리트들이었고, 여성지였음에도 남성필진의 비중이 더 컸다. 따라서 여성

지를 중심으로 한 교양여성담론은 1950년대 문화엘리트들에게 지배적 헤게모니로 작용하고 있던 미국식 생활양식을 전제로 하여 미국여성의 교양과 라이프스타일을 전범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역할 역시 주로 가정 내의 영역에 제한된 이른바 현대적 현모양처 모델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교양여성담론이 문화엘리트들의 미국 문명 수용과 관련하여 구성되었다는 전제하에, 교양여성담론에 반영된 미국헤게모니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독서와 글쓰기가 여성교양의 유력한 수신방법으로 선택됨에 따라 여성적 문학규범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젠더화된 문학규범이 실제로 여성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또 굴절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1950년대 독서시장의 유력한 소비집단으로 성장한 여성독자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규율과 훈육담론으로 포섭되지 않았던 자기구성의 논리가 어떤 것이었나를 밝히고자 한다.

2. 미국헤게모니와 현대적 교양여성

해방 후 교양을 미끼로 해서 외국어를 좀 지꺼릴수있는것을 기화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소위 인테리 여성이 외국인과 더불어 우리의 풍기를 문란케한것은 이에 재언할필요가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사실이다. ……오늘의 미국의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수많은애국자의 피로서 빚어진승리인것이다. …… 더욱 한 나라가 흥하려면 그나라여성의 힘이 커야한다. 왜? 수많은 애국자와위대한인물은 어머니의 교육에 힘입은바 컸던것이다. …… 현대사회는 참다운 지성(知性)의 여성을 부른다. 건설의 일꾼을 부른다. 물론 그들을 전환시키는데는 당국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개개의 각성이더욱 필요한것이다.⁴⁾

4) 전해라, 『知識女性은 猛省하라! 韓國女人의 矜持를 爲해』, 『경향신문』, 1950. 3. 26.

1950년 3월 2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위의 논설은, 해방 후 새로운 국가체제건설기에 인텔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글에 따르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지성의 여성”은 새로운 국가체제의 “애국자와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여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여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자각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텔리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적 요청은 1950년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부터 본격화된 여성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체제건설을 위한 현대적 현모양처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⁵⁾ 여성들의 평균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위 ‘배운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은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다. 즉, 1950년대가 되면 해방 전의 신여성들처럼 여학교를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소수의 문화적 엘리트집단으로 분류되지 않고, 학력 이외의 교양수준과 사회적 규범의 습득을 기준으로 소위 ‘배운 여자’들 내의 문화적 위계가 세분화 되기에 이른다.⁶⁾ 앞의 인용에서 확인되듯이, 이러한 문화적 위계를 주도하는 담론은 해방 후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국가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헤게모니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는 현대적 교양여성 담론이 사실상 총동원체제기의 총후부인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성모델로 제시되고 있었고 이 같은 담론적 단절의 근거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
- 5) 미군정기부터 1950년대까지 여성교육의 현모양처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연구로는 조경원·이배용,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 『한국교육학사』 제22권 22호, 2000, 12. ; 이입하,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제122집, 연세대학교학연구소, 2003. ;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Vol.19, No.4, 2007. 12. 참조.
- 6)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No.34, 2009.

해방 후 남한사회는 총동원체제기의 ‘동양·아시아’라는 근대초극담론을 해체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적 가치체제로 빠르게 재편되어 갔다. 이처럼 미국이 남한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대일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대국이면서도 유럽의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반침략·평화애호의 선진문명국이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⁷⁾ 원자탄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문명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세계최고의 강대국 미국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초극한 세계사적 보편질서의 표상으로 그 헤게모니를 확립해가고 있었던 것이다.⁸⁾ 요컨대 세계성의 표상으로서의 ‘미국(문명)’은 ‘동양·아시아’적 보편세계를 초극한 새로운 하나의 세계사적 질서로 신생독립국가 한국의 지배적 헤게모니로 작용하게 되었고, 국가체제건설에 기여할 현대적 현모양처 담론은 기존의 ‘동양적 여성상’을 초극하고 미국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한 새로운 교양여성 모델의 모색으로 구체화되었다.

2.1. 건전한 경제관의 자본주의적 교양인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적 교양여성의 모델은 기존의 부정적 여성상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봉건적 구습에 젖어있는 ‘구여성’이 동양적 후진 문명의 표상으로 부정되는⁹⁾ 동시에,

7)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의 구성』, 『史叢』 67호, 역사학연구회, 2008. ;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8.

8) 임종명은 이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국제적”, “세계적”이라는 수사를 통해, ‘미국’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보다는 국제사회, 세계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임종명, 앞의 글) 이러한 예는 여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헬리웃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헬렌 황’을 “세계적 미용사”로 소개하고 있는 『여원』의 기사가 그 예이다. -「모국을 찾아온 세계적 미용사 헬렌 황여사」, 『여원』, 1957, 7.

9) “첫째로 우리는 동양에 있어서의 결혼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에 한 남자

‘UN마담’, ‘아프레겔’, ‘자유부인’ 등은 미국문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물욕의 맹목적 추종, 사치와 허영, 성적 방종을 일삼는 천박한 여성의 표상으로 부정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를 상대로 한 경제적·성적 교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텔리여성들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었던 만큼, 교양여성 모델은 인텔리여성 내의 위계적 구별짓기의 근거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교양여성 담론은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출판매체를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특히 『여원』, 『주부생활』, 『여성계』 등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성장한 여성잡지는 이러한 담론의 형성과 유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⁰⁾ 이들 잡지는 1950년대에 급증한 문화계인사들의

나 한 여성이 그의 일생의 반력으로 삼을 상대를 택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보다도 부모가 그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결혼형태 내지는 부부상을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로서 여기에 모든 병폐와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런 당자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부모의 강권주의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개한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악습으로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동양의 후진성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강조-인용자) - 광중원, 『東洋的 夫婦關係의 反省』, 『여원』, 1957, 12.

그러나 동양적 여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는데,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자각을 강조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내의 희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동양적 부부관계의 미덕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 『인형의 집』의 노라나 『보바리 부인』의 보바리가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배반한 것은 동양적 부부관계의 미덕이 부재한 서구의 소설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광중원의 발언은 교양여성 담론이 남성지식인을 통해서 구성될 때, 여성해방의 문제가 어떻게 굴절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성편이 희생적인 동양의 부부간의 생활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높이 평가하여야 될 동양여성만이 가진 미덕이란 것입니다. …… 이런 동양의 미덕은 서양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있는 예입니다. 부부 관계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중에서도 가령 입센의 『인형의 집』이나 프로오벨의 『마담 보봐리』 등 이런 작품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희생정신을 몰각하고 남편을 배반하거나 가정을 버리고 달아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 광중원, 위의 글.

10) 1950년대에 창간된 이들 여성지는 ‘여성이라는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의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기획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의 편집진이 “계몽적 발화주체”로 기능하고 있는 여성담론은 필연적으로 현모양처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지의 편집체제가 보여주는 다성적 담론의 공존은 1950년대 여성

미국방문, 유학생이 경험한 미국사회의 소개, 한국에 체류한 미국 여성들의 체험담 등을 기사화하여 미국문명에 대한 여성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다. 문화계 인사, 유학생, 관료, 외국인 선교사 등 문화적 엘리트들의 미국문화 소개 기사는 대학제도를 통한 엘리트중심의 미국문화의 수용태도를 모방하면서도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효과적 방법이었다.¹¹⁾ 이러한 기획은 미국여성의 실상이 ‘아프레겔’이나 ‘자유부인’류의 여성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교양과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문화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미국사회가 철저한 자본주의 질서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십대 소녀부터 칠순의 노파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토대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미국경제의 풍요로움과 선진적 문명을 완성했다고 여겼다. 흥미로운 것은 ‘아프레겔’, ‘자유부인’류의 여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성적방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겠다는 진정한 노동관념에 서지 않고 육체를 미끼로 소득을 취하겠다는 무지한 경제관념”에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는 ‘건전한 경제관념’과 ‘노

담론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이선미, 『『여원』의 비군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008. 6.

11) 한국전쟁 이후 미국문화는 ‘미군부대’와 ‘학교(대학)’라는 대표적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는데, 미군과 연결되는 미국문화는 양키문화로 폄하되고 부정되었던 반면, 후자는 대학제도를 비롯한 미국 엘리트층의 학문과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 『상허학보』 No.25, 2009.

12) “해방 후, 六·二五후 짧은 기간에서 여성의 해방 거기 따르는 성개방의 문제로 한국사회가 혼란기에 처해있는 것도 위와 같은 역사적 분석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구나 저속한 상인들은 이런 그릇된 성적혼란을 이용하여 폭리를 착복하려고 피하는만큼 밀매음영업 비밀 댄스홀 외군상대의 밀매음영업으로 영화비슷한 저속한 군상영화의 범람이 성행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더구나 부패한 정치세력은 여성의 상품화를 더욱 조장하고 고기덩어리처럼 팔려가는 여성들의 허영심은 올바른

동윤리가 개인의 윤리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인텔리여성 내의 문화적 위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텔리여성의 성적일탈과 방종이 허영과 사치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1950년대의 지배적 담론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비판과 비난의 저변에는 인텔리여성의 “무지한 경제관념”과 잘못된 “노동의식”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텔리여성들의 성적방종을 바로잡고, 현대적 교양여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여성의 선진적인 경제관념과 직업·노동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사회와 미국여성의 실상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경제관념과 합리적 계산법이 특히 강조되었다.

나아가 미국인들의 철저한 경제관념에서부터 시간의 효율적 사용,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자기계발,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소비 등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개인의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시간의 엄수, 친절하고 사교적인 태도,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의 선택 등 다양한 사회적 규범의 강조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대학 강의가 시간당 몇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계산하여 일본일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수업에 집중하는 미국식 계산법은 합리적인 경제관에 기초한 자기관리의 사례로 이해되었다.¹³⁾

성개방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겠다는 진정한 노동관념에 서지 않고 육체를 미끼로 소득을 취하겠다는 무지한 경제관념을 없애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예측적인 인형적인 성적관념에서 벗어나서 인간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강조-인용자) - 장경학, 『韓國女性的 性關心과 性行動의 變遷』, 『여원』, 1957, 12.

- 13) “내 눈에 반영된 미국의 면면은 여러모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감상이다. …… 이 선생의 충고는 분명히二百불의 수강료를 하나의 투자로 사고하고一分一초를 헛되이 보내는 수강태도는 그만큼 투자에 대한 마이너스라고 단정하는 그들의 건실한 경제관과 생활철학을 말하는 것 같았다. …… 미국 여행동안 느낀 단상과 단상을 주서모아 하나의 착상으로 종합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위대한 경제력과 인공과 고도의 물질문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 채몽인, 『訪美隨感』, 『여원』, 1958. 4.

이와 같은 미국식 경제관과 계산법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는데, 당사자가 직접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만큼 기회비용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여성들은 한국여성과 달리 배우자 탐색을 위한 데이트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남성 역시 세 시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최소한의 데이트비용으로 지불하는 만큼 여성과의 데이트에 성의를 다 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미국식 경제관에서 상호존중의 남녀관계가 형성되었고, 가정경제의 책임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짊어짐으로써 평등한 부부관계를 전제한 미국식 핵가족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군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파트리샤 레비부인을 인터뷰한 『여원』의 기사는 그녀가 출국 전 여비 장만을 위해 직장 일에 매진해야 했던 것과 한국에서의 취직자리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경험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미국여성의 보편적인 생활방식이었음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¹⁵⁾ 나아가 미국여성을 다룬 이러한 기사를 통해 한국여성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더욱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특히 “미국여성은 정조를 잃었다고 해도 교양 있고 아름다우며 돈만 있으면 처녀건 과부건 결혼하는데 차이가 없다”¹⁶⁾는 진술은, 전체 “미국여성 인구의 1/3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국가의 부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여성보다 더 많

14) “‘웍엔드’인 금토일요일에 데이트가 이루어지며 남성들은 최소한도 오불을 쓰게 된다. 이것은 꼬박 세 시간 이상 일하여야만 버는 돈이니 남자 대학생에게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 이리하여 결혼비용을 대개 당사자들이 준비하여 완전 독립의 토대를 닦는다. 아무 고생 노력도 없이 부끄러워 고개 숙이며 얼굴만 굽히는 선 한번만 보면 고스란히 쉬이 결혼하여, 평온히 지나가는 한국 여성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의외하여 안일한 노예가 되느니보다 자기 구□을 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나 남녀평등을 찾아 고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다.” - 박노연, 『美國女性에 관한 노트』, 『여원』, 1958, 9.

15) 파트리시아 레비, 『韓國 온돌방에서의 우리 新婚生活』, 『여원』, 1959, 3.

16) 박노연, 『美國女性에 관한 노트』, 『여원』, 1958, 9.

은 자유와 삶의 가능성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케 한다.¹⁷⁾

1950년대 대표적 여성지인『여원』이 지속적으로 서기, 비서, 타이피스트, 교원, 미용사, 아나운서 등 여성의 전문 직종을 선택하여 소개했던 것은, 소수의 전문직여성에 대한 대중의 선망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여학생이나 여대생 등 미취업여성에게 선택 가능한 직업의 종류를 소개하고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었다.¹⁸⁾ 『주부생활』의 경우 양재, 샷바느질, 양계 등 여자 혼자서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를 소개하여 학력이나 계층, 생활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⁹⁾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여성지의 이러한 기사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미국사회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한 결과였다. 따라서 1950년대 교양여성 담론을 종합한다면, 현대적 교양여성이란 ‘건전한 경제관과 직업 의식을 전제로 일정 수준이상의 학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자본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기능을 행사하는 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2 사회진출이 차단된 교양여성의 스위트홈신화

전술한 바와 같이 학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자유로운 남녀교제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미국여성의 표상은 한국의 교양여성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에 직접적인 전거로 작용하였다. 가정과 사회생활의 조화

17) “어느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여성 전체의 삼분의 일의 숫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 일을 해야만 살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그들의 신념이며 생활양식이고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거기에서 얻는 보수로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자기의 직장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급기야는 국가의 부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 박현서, 『美國女性の 職業觀』, 『여원』, 1958, 9.

18) 『여원』은 창간호부터 『職場日記』라는 화보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여성을 인터뷰하여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을 소개하고 있다.

19) 최병문, 『순쉬운 다섯가지 부업소개』, 『주부생활』, 1959, 2.

를 이룬 미국여성의 삶은 한국인 필자의 눈에 이상적인 인텔리여성의 모델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에게 대학시절이 “가장 희망에 찬 시절”로 보이는 것은, 취업과 결혼이라는 삶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대생에게 대학생활은 졸업 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과정이기도 하며,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일정한 Boy Friend나 약혼자를 찾지 못한 여학생들은 노골화된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 의사로 자유롭게 상대자를 구할 수 있는 미국여성들의 특권이 지불하는 대가”이기도 했다.²⁰⁾ 또한 미국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 가령, 재치·친절·에티켓·시간의 엄수·약자에 대한 동정심·사회적 언어로서의 패션센스 등은 직장여성으로서 익혀야할 사회생활의 예의였다. 미국의 여대생들은 수업 외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예의와 규범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유달리 여성에게만 강조되었던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비서·타이피스트·교원·도서관사서 등 미국 내의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요구되는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인텔리여성의 교양과 품행은 미국여성의 경제적 토대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미국 인텔리여성의 표상은 경제적 환경이 다른 한국여성이 모방하기에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사회성으로 분류되는 명랑·친절·검소·성실·가정에 대한 헌신과 남편의 사랑을 유지하는 태도 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보편화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남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딪치면서 학습되는 공적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남성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때 비로소 여성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대체로 미국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낮은 것은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20) 오덕주, 『아메리카의 韓國留學生』, 『여원』, 1957, 12.

경제활동의 기회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미국사회 관찰기는²¹⁾ 스위트홈의 실현은 아내의 지혜와 현명함과 같은 현숙한 부덕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그러나 당시 한국여성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당시 한국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미국여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고, 무엇보다 소비재위주의 원조경제체제 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업의 종류와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여성을 모델로 한 한국여성의 교양담론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교양은 Cultivation(문명화·매너화·문화화·훈육)과 Development(개발·계발·발전)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교양의 의미에는 기존의 봉건적 신분질서가 해체된 뒤,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력과 경제력을 통해 사회적 계층상승을 이루려는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자기보존을 위해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고 경쟁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수양 역시 교양의 한 범주로서 개인들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적 덕목으로 대두되었다.²²⁾ 그러나 1950년대에 학력과 경제력을 통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여성이 경쟁을 통해 신분상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경쟁의 현장에서 선수로 뗄 수 없는 인텔리여성에게는 필드 밖의 매너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말하자면 1950년대 교양여성담론 또는 교양의 젠더화의 기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구성된 1950년대 여성의 교양담론은 “문명화·매너화·문화화·훈육화”(Cultivation)의 의미가 강조된 반면에, “개발·계발·발전”(Development)의 의미는 삭제되거나 약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교양은 대개 “예의바른 품성과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21) 안인희, 『美國은 果然女性の樂園이었던가』, 『여원』, 1958, 3.

22)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40호, 2009.

“현모양처의 덕성과 품행, 매너” 등으로 구성되었다.²³⁾ 특히 일간지에 소개되고 있는 ‘교양강좌’의 용법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양강좌’, ‘주부교양강좌’였던 사실로 미루어, 이처럼 젠더화된 교양의 개념은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양’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와 규율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미국사회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 구성원의 교육수준이나 의식수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의 여성의 경제적 조건의 산물이었다. 사회적 경험을 통해 훈련된 여성적 규범과 미덕, 세련된 매너 등은 미국 여성의 실용적이고 쾌활한 성품으로 구체화되었고, 한국여성은 이러한 미국식 여성교양의 학습과 모방을 통해서만 문화적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과 노동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국여성의 현실에서 이러한 교양은 가정 내의 영역에서만 허용되었고,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의 공적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은 미국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도될 수밖에 없었다.

3. 교양의 젠더화 : 교양여성 담론과 문예²⁵⁾

3.1. 여성적 교양으로서의 문학과 예술

“자신의 생활을 가진다는 일은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이

23) 이선미는 1955년에 창간된 여성교양종합지 『여원』이 통속화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현모양처론적 여성교양 담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24)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vol.40, 2010.

25) 2장과 3장의 일부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운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VI장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며 속되게 말하면 자기의 생활을 틈새 없도록 짜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 길은 문학을 하여도 좋고 예술을 하여도 좋습니다. 사회에의 봉사도 직접 참가하는 일도 좋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남은 자기의 힘과 정열을 가정 외에 보다 나은 일에 바친다는 일은 여성이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이나 특히 사회와 등지고 살아서 세계정세에 어둡고 적은 일에만 구애되고 시야를 넓게 가지기 어려운 가정주부나 일반여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강조-인용자)²⁶⁾

인텔리여성의 사회활동이 한정된 환경에서 여성이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위의 인용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으로써 글쓰기, 보다 구체적으로 문학과 예술이라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봉사나 문학예술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승화시키는 유효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950년대는 흔히 신문과 잡지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인쇄매체의 활발한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²⁷⁾ 미국의 원조로 해방 후 각종 잡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창간되었고 영화, 오락, 교양 등 특화된 성격의 잡지들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시기이기도 하였다. 1950년대 말 출판연람에 따르면 이 시기는 단행본 보다는 잡지의 출판과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체환경에서 여성은 ‘여성지’라는 특화된 잡지의 소비자로서 출판시장의 의미있는 소비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잡지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소통이 가능해진 것도 이러한 매체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가 여성교양의 방법으로 강조된 것은 출판 시장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자,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발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음을 확인케 한다. 독서는 여성이 가정 밖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26) 정충량, 『마음의 꽃밭-女性自身の 生活을 가지자』, 『여원』, 1958, 5.

27)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vol.29, 2010.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 10.

이었고, 잡지의 독자투고란 또는 문예현상공모는 공적영역에서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는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애 독자현상공모는 잡지를 읽은 소감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작가’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적영역 진출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수입이 보장된 하나의 ‘직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작품을 ‘생산’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갖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가정을 다스리고 남은 힘과 열정”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권장되었다는 사실이다.²⁸⁾ 즉, 독서와 글쓰기 ‘행위’에 대한 가치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 또는 공적발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면, 여성에게 허용된 독서와 글쓰기의 구체적 ‘내용’과 ‘규범’은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가정여성으로서의 자의식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애의 성공, 스위트홈의 성취는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의 최종 도달점이자 자아실현을 위해 허용된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당연히 여성의 글쓰기와 독서는 가정영역과 관련된 세계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공간의 숭고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발견,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육아에 몰두하고, 가사를 돌보는 여성의 내면세계를 전면에 내세워 가정여성과 가정공간의 가치를 강조한 여성적 독서와 글쓰기의 성격은 천경자, 최정희, 박목월, 전숙희 등 기성문인들의 에세이와 지상문예강좌 등을 통해서 일종의 ‘여성적 문학규범’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여성적 문학규범’은 가정여성의 내면세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가정공간의 재발견과 함께, 문학적 세계를 이상화하면서 문학을 여성교양의 대표적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28) 여성의 글쓰기가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본 절에서는 문학예술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관계 맺기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3.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가정여성(domestic woman)의 발견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독자들이 문학적 생활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지에 연재되고 있었던 문인들의 에세이였다. 당시 『여원』이나 『주부생활』에는 고정 필자의 에세이가 연재되었는데, 그러한 글의 필자는 조연현, 박목월, 천경자, 최정희, 마해송, 조지훈 등의 문인들이었다. 『주부생활』에 연재된 문인 에세이는 박목월의 「女人의 書」, 조연현의 「문학과 인생」, 마해송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운숙의 「그 아내의 手記」, 천경자의 「육아일기」, 조지훈의 「생활의 꽃밭」 등이 있었고, 『여원』에 연재된 에세이는 최정희의 「생활의 지혜」가 있었다. 이 글들은 일기, 편지 등의 형식으로 일상의 소소한 화제에 대한 관찰과 사색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내용은 육아, 요리, 유행, 부부 간의 갈등, 자녀교육, 주거 등 가정의 영역 또는 여성의 영역에 관련된 화제들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들은 공통적으로 사색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 감성적 고백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문인에세이가 공식적인 문학론은 아니지만, 문학과 언어의 세계를 통한 사색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러한 문인 에세이를 통해서 문학적 생활 혹은 문학적 글쓰기의 규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인 에세이에의 내용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상의 관찰과 사색을 통해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는 점, ‘유년기에 대한 향수’가 두드러지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낭만적 동경·상실감’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끝으로 ‘고독에의 심취를 통한 개성의 발견’이 그것이다. 가령,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되는 소소한 일화를 기록한 천경자의 「육아일기」는 육아일기라고는 하나 아이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기록보다는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여류예술가로서 느끼게 되는 생활에 대한 감상과 일상적 사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²⁹⁾ 아이를 키우

29) “보랏빛 하늘 높이 상현의 달이 떴다. 나는 쫄쫄에게 귀중한 선물이라도 보여주는 양 달을 가리켰다. 쫄쫄은 “파이” “따-인” 하고 달을 부르며 잡혀지지 않는다는

고 살림을 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필자에게는 관찰과 사색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통해 육아와 살림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가정공간은 여성의 내면을 형성하고 개성을 창조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계절과 일기의 변화를 관찰하며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진리를 생각하고, 뜰을 가꾸면서 생활의 여유와 위로를 찾는 이러한 사색의 태도는 평범한 일상이 실은 풍부한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태도에서 독서와 글쓰기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성을 길러내고 심미적 감각을 세련화 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일상에 대한 관찰, 익숙한 세계에 대한 의미부여와 감수성의 발견은 문인 에세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미적 세계인식의 태도이다. 일종의 ‘생활의 발견’이라 할 만한 이러한 에세이가 내포독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잡지에서 꾸준히 연재되었다는 사실은 여성의 독서를 가정적·사적영역과 관계 맺게 함으로써 독서와 사색, 글쓰기를 통한 여성의 개성의 발견과 자기창조의 미학이 가정과 일상의 영역 내에서 자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가정적 영역에 대한 의미부여와 문인 에세이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유년시절에 대한 낭만적 향수와 동경이 자주 드러난다는 것이다.³⁰⁾ 우연히 소중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특별한 음악이나 노래를 들을 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자기 삶의 역사

듯 양팔을 올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 옛부터 인간이 인생을 사색하고 호소해 왔던 것은 광명의 해가 아니라 창백한 빛을 던져주는 고독한 달이 아니면 더 멀고 희미한 별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달을 보면 쏘는 듯한 쓰라림 속에서 부드러운 그늘을 찾는 때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천경자, 『육아일기』 6, 『주부생활』, 1958. 9.

30) “-멀리, 그들 옆을 떠나와서, 그들의 모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그 어린 것들의 배경해 얹은 곳이 바다가 아니고 솔밭이며, 그 솔밭에 가난한 초가-아마 어부인 그들의 보금자리일 것이다.-에서 저녁 연기가 가늘게 한 오리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이 가느다란 연기가 오르는 풍경을 보는, 내 눈을 저주하고 싶었다. 그 바다의 심장에 맞줄을 담그는 어린 신(神)들을 우리의 각박한 생활의 체색 앞에 세워놓으려는 나 자신을, 시인답지 않게 소위 생활에 닳아빠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 박목월, 『여인의 서』 8, 『주부생활』, 1958. 8.

에 대한 자전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감상적인 세계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³¹⁾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향수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낭만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며 이는 감상주의적 세계인식의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여성독자는 문인에세이를 통해 감상적 세계인식을 내면화하고, 과거의 시간에 대해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옛 시절’이라는 낭만주의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감상적 세계인식이나 낭만주의적 동경은 여성독자에게 있어서 문학적 글쓰기의 욕망을 추동해 내는 동인이 된다.

문인들의 사색적 에세이는 일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 유년시절에 대한 낭만적 동경, 고독의 향수 등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몰입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세련된 심미안을 형성했다. 이러한 문인 에세이의 감수성은 여성독자의 문예취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여성독자의 감상주의적 세계인식은 독자문예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여성지의 「독자문예교실」이나 「애독자현상공모」, 「독자사교실」에는 콩트나 수필, 시 등의 문예창작물이나, 다른 독자의 문예작품에 대한 감상의 글을 투고함으로써 여성독자들은 잡지를 매개로한センチ멘탈한 문예공동체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일상에 관찰과 사색, 낭만적 동경과 같은 포즈는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한 몰입과 정서적 유대, 공감을 순수한 문학적 세계인식의 고급한 태도로 여기게 했다. 평범한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남다른 감수성으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여성은 개성적 주체로 자신의 내면을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선호되었던 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의미와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나 문학작품 속에서 재현되었던 사례로써 대상에 대한 통찰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성의 교양과 개성의 발견이 문학을 통해서

31) “어떤 음악이나 노래를 듣는거나 소중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흐르게 한다. 주체의 역사성 안으로 잠겨드는 것은 자전적인 시도에 고유한 특성이며, 감동과의 또 다른 관계를 보여준다.”- 안 배상 뷔포, 이자경 역, 『눈물의 역사 : 18-19세기』, 동문선, 2000. p.63

가능했음을 짐작케 한다.

3.3. 가정여성담론과 여성독자의 글쓰기

그렇다면 여성독자들이 이러한 문학적 세계인식의 태도를 실제 문예창작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태도가 문예공동체로서의 여성독자 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제 그들이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적 글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성 문인들에 의해 계도되고 있었던 문예창작의 규범은 무엇이었고, 여성들은 이러한 규범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지에 연재된 문인들의 에세이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심미적 감각의 세계’로서의 여성적 문학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여성독자들은 이러한 문학규범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여성지의 『독자문예교실』이나 『애독자현상문에 공모』, 『여류현상문에 공모』 등의 지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자문예교실은 서정주, 김동리, 최정희 등 기성작가의 선후평을 통해서 간단한 문예 지도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들의 독후감을 공유함으로써 문예창작에 대한 독자 일반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주부서한문강좌』나 『주부문장 강의』 등 비전문적 문예집단인 주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장 강의를 소개함으로써 여성독자의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여성(또는 주부)의 글쓰기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³²⁾

32) “그러므로 문장은 말하듯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뜰 앞에 함박꽃이 탐스럽게 피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찬탄을 한다. ‘어쩌면 저렇게도 탐스럽게 피었을까? 마치 우리 딸 혜련의 얼굴처럼 환하구나’ 본대로 생각난대로 무심코 한 말이다. 글이 쓰고 싶어서 우리는 이것을 글씨로 표현해 본다. 자기가 아까 말한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알고 쓰는 한글, 글자로 옮겨서 기록해 본다. …… 글자로 써 놓고 보니 이것은 곧 문장이 된다. …… 문장은 별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다. 본

주부 문장강화의 필자들은 글을 쓴다는 것은 일상의 감정을 세련화하는 훈련의 과정이자,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³³⁾ 이러한 글쓰기는 뛰어난 문장력이나 특별한 사상적·철학적 세계인식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소박함과 일상에 대한 개성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50년대 여성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여성의 글쓰기와 독서에 대한 규범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문학경험을 비전문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실제로 『독자문예교실』에서 매회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독자문예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여성독자가 글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여성독자들의 문예취미를 반영한 여성지의 편집이 문인들의 에세이를 통해서 감성적 영역으로서의 여성적 문학개념을 구성하였다면, 이러한 문학개념이 여성독자 일반이 오해하고 있는 센티멘털한 감상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독자문예교실』의 선후평에서 계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기성문인들이 주도한 여성의 글쓰기 규범이란, ‘가정여성의 자기수양과 내면의 발견으로써의 글쓰기’로 종합되는데, 이는 여성의 세계를 가정공간으로 한정지으면서 사회/가정, 남성적 공간/여성적 공간이라는 이분법적 세계인식을 고착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젠더적

대로 느낀대로 잘만 표현하면 고만이다.(강조-인용자)” - 박종화, 「특집 : 주부를 위한 문장강좌 - 문장이란 무엇이나, 『여원』, 1958. 1.

33) “내가 읽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어렸을 적 국민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 그러나 내가 글쓰기를 배우고 연마한 것은 또한 그 무질서하고 또 솔직하게 자기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표현해 나가던 그 일기에 서였습니다. 또한 내가 자기라는 것을 반성하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 일기를 써나가며 또는 목은 일기를 읽어가며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은 세련되고 또 정리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강조-인용자)” - 전숙희, 「특집 : 주부를 위한 문장강좌 - 일기는 어떻게 쓸 것인가, 『여원』, 1958. 1.

세계인식과 교양의 젠더화가 가부장적 권위를 전제로 한 여성의 통제담론으로 기능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4. 교양여성 담론과 새로운 독서시장의 형성

4.1.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문인들의 권위적인 발언을 통한 여성적 문학규범의 형성과는 별개로 독자 내부에서는 여전히 감상주의적 문예 취향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독자싸롱』, 『독자통신』 등의 지면을 통해 『독자문예』에 대한 감상주의적 독후감이 공유되고 있던 것이 대표적이다.³⁴⁾ 즉, 『독자문예』에 대한 문인들의 엄정한 선후평과는 별개로 독자들은 다른 독자들의 글을 읽으며 감상적 문예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독자들은 선자들의 비판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작품을 ‘문학소녀’의 ‘소녀문학’으로 칭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러한 문예취향은 문인들의 권위적인 선후평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문인주도 하에 형성되고 있었던 여성적 문학규범과 실제 독자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었던 ‘문학소녀’의 ‘소녀문학’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은 여성지라는 ‘상업적 매체’를 통해서 문학담론

34) “저는 문학을 해보겠다는 소년이건만 졸업반이 되고 해서 대학입시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 4월호 독자란에 수필을 투고하셨던 최봉희님 잘 지내시는지요. …… 『여원』지상을 통하여 안부 전합니다.” - 『독자싸롱』, 『여원』, 1956. 6.; “『문예교실』에 소개된 문영숙씨께 부칩니다. 지난 호 『독자의 산문』에서 당신께서 쓰신 『앵두의 임종』을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앵두같이 동글동글한 소녀품이 풍기는 작품이었습니다. …… 저는 문학취미는 있으되 천질이 없어서 한편의 콩트조차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삼아 앞으로는 꼭 좀 써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좋은 작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종종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을 주도록 하세요.” - 『독자싸롱』, 『여원』, 1957. 10.; “여원을 읽을 때마다 시, 콩트, 수필이나 써서 저도 한번 여원사 선생님께 보내고 싶은 마음 이루 해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집살이 하는 몸이라 어디 마음이 안전해야지요.” - 『독자싸롱』, 『여원』, 1958. 1.

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독자에게 글쓰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소통으로 경험되고 있었던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즉, 여성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가정영역 안에 국한하여 경험되는 내면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독자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공적영역의 구성원으로서 경험되는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자아의 발견이 여성지를 매개로 한 독자/문예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의 집단적 구성원으로서의 젠더적 정체성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원』과 『주부생활』의 독자문예가 아마추어적 글쓰기의 장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여류현상문예공모』는 문단활동을 전제로 한 신인 여류문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여성의 글쓰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⁶⁾

현상문예공모의 심사자들은 여성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여성적 문학규범을 전제로, 각종 연재지면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 ‘감수성의 영역으로서의 여성 글쓰기’를 평가의 중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여성만이 쓸 수 있는 여성의 이야기, 여성적 감수성이 포착해 낼 수 있는 심미적 감각으로서의 여성적 문학규범은 심사자들의 심사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독자문예』의 아마추어 여성문예에 대한 선자들의 비판

35) 잡지 자체가 갖고 있는 다성성은 여성적 문학규범에 대한 권위적 발언과 이러한 발언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독자의 담론이 병존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이는 1950년대 잡지출판시장에서 여성독자가 유력한 소비자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이들을 단순히 계도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는 경제적 논리가 저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6) 여원창간기념 여류현상문예모집은 1956년 1월에 제1회 수상자가 발표되었으며, 각 장르별 심사위원으로는 소설·최정희·백철, 시·서정주, 수필·마해송·조풍연이 맡았다. 『여원』 여류현상문예 당선작 목록과 작품내용에 대한 연구로는 이선옥, 『『여원』의 중심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회, 『여성문학연구』 vol.19, 2008.이 있다.

37) “『귀로』는 선외가작으로 되었으나 역량을 가진 작가로 보여진다. 그러면서도 선외로 미끄러뜨린 것은 군데군데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서투른 솜씨** 때문이다. ……

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은 현상문예의 심사평에서도 역시 반복되고 있는데, 응모작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센티멘털한 문학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점은 심사자들이 응모작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로 언급된다. 그러나 『여원여류현상문예』의 심사위원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여성독자들의 참여열기는 대단했는데, 1~5회까지 응모작 중 소설의 경우 평균 48편에 이르고, 시와 수필 역시 각각 평균 177편, 48편에 이른다. 또한 기존 문인들의 심사평에서 감상주의적 비전문성이 여류문예의 한계로 지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선자들의 당선소감은 전문적인 문사로서의 포부와 열정이 드러나 있다.³⁸⁾

이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열정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문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 당선소감에도 드러나 있듯이, 여성독자들이 글쓰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예창작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된 배경에는 “여성이라는 비극적 삶에 대한 숙명성을 넘어서”서 여성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이는 당선작(특히 소설의 경우) 대부분

「스마트라」 가장 정을 느끼면서 읽은 작품이다. …… 여자가 아니면 쓰기 힘든 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에 이 작가는 문학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점이다. 좀더 깊이 파고 들었던면 우수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귀향」 긴장해 내려가다 일기에 가서 맥이 탁 풀렸다. 너무 지루했던 것이다. 30년을 이렇다할 결정적이거나 종결을 짓는 앙그러진 생활태도가 없는 인규의 성격을 또렷이 보여주어서 기쁘다. …… 너무 재조를 부리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들어나기 쉬우니까. 「까막섬 우화」, …… 서두의 얼마쯤이 지루하달 뿐이지 **일보 영감의 고독이 뼈저리게 들어났다.** …… **일보영감과 젊은이들의 대화에서의 사투리의 묘미는 칭찬할만도 하다.**(강조-인용자)-최정희, 『여원창간기념 여류현상문예 소설 선후감-태동하는 신인들의 놀라운 모습』, 『여원』, 1956. 1.

- 38) “글을 써야겠다는 의식은 언제나 나를 쫓아다니는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의식이었다. 아마 이것은 숙명적으로 나의 일생을 따를 또 하나의 반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작은 기회를 얻어 움적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나 맴도는 이 의식을 좀더 차근차근 기르고 싶은 것이 나의 원이다.” - 박기원, 『여원창간기념 여류현상문예 당선소감』, 『여원』, 1956. 1. ; “스스로 선택한 가시 면류관을 몇번이나 한탄하였다. 그러나 창작에 몰입하는 기쁨은 법열과 같은 것인지 떼어버릴 수 없는 집요한 애착이었다.” - 최미나, 『당선소감-형극의 길』, 『여원』, 1958. 1.

이 여성의 결혼과 사랑,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내러티브를 스스로 구성해냄으로써 지금껏 모호하게 다뤄졌거나 침묵되어 왔던 여성의 욕망과 감각을 발견하고, 자신의 구체적 삶의 경험을 서사화함으로써 기존의 가치체계로 설명할 수 없었던 자기 정체성의 논리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현상문예나 독자문예와 같은 여성의 비전문적 글쓰기가 지나치게 자기고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설보다는 수필이나 수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자주 지적되었던 것은 여성의 글쓰기가 자기정체성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더욱이 자기발견으로서의 글쓰기(혹은 스토리텔링)의 욕망은 기성 문인들이 강조한 여성적 문학규범의 논리에 조응하여 가정과 일상의 영역을 배경으로 한 심미적 감수성, 또는 낭만적センチ멘털리즘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문화소비자로서의 여성독자의センチ멘털리즘은 잡지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기존의 본격문학의 규범과는 괴리되면서 여성적 문학취향 또는 여성적 문학규범은 함량미달의 값싼 감상주의 또는 공허한 문학적 포즈로 위계화되었다. 여성일반의 문예취미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시선은 여성작가들이 밝힌 자신의 창작태도와 여성독자들에게 제시되었던 문예창작의 태도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4.2. 전문/아마추어 문예의 위계적 이원화

여류현상문예 응모작에 대한 기성문인의 비판적인 평가는 여성의 문학이 여전히 아마추어적 감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면서, 본격문학의 규범과 여성문학의 규범이 괴리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였다. 즉, 여성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적 문학규범의 제도화와 신인 여류문사의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된 『여원여류현상문예공모』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단 내의 문학규범과 비교하여 여류문학의 미숙성을 확인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여성독자의 문예취미를

장려하는 한편, 여성적 문학규범을 형성하고 나아가 감수성의 영역으로서의 여성적 문학개념을 구성하고자 했던 여성지의 기획은 여성의 문예를 비전문적 영역으로 구획 짓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여성독자의 문학취미를 센티멘털리즘이 과잉된 일종의 하위문화로 인식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여류현상문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공모에 당선한 작가들 중에 성공적으로 문단에 진출한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⁹⁾

“문학을 한다는 일은 고행인 것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등산가의 자세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고 싶다. 목적인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바른쪽 계곡도 왼쪽 계곡도 보이지 않는다.”(강조-인용자)⁴⁰⁾

“시인이 되느냐 세상 살아나가는데 성공을 하느냐 그 어느 한 가지를 택해야지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공존은 할 수 없는 세계다.”⁴¹⁾

문단 내의 여류문사로서 권위를 갖고 있던 이들은 모두 창작의 과정이 치열한 고행의 연속이며 세속적 가치를 포기해야만 이룰 수 있는 분투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문예창작의 자세에서는 삶의 여유와 통찰을 위한 세련된 심미안적 감수성은 안이한 문학적 포즈에 다름 아니다. 여성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지난하고도 진지한 창작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39) 『여원현상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 중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이들은 최미나, 박기원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당선이후 문단에서 뚜렷한 활동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1

40) 최정희, 『여류작가가 되려는 분에게-재능과 집요한 노력이 필요』, 『여원』, 1956. 1.

41) 노천명, 『여류시인이 되려는 분에게-글쓰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여원』, 1956. 1.

들은 단순한 문학적 포즈가 아닌 개성의 발견과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인식의 태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말하는 작가의 삶은 일반 여성독자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감상적 세계인식의 과정으로써의 문예창작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은 곳에 있었다. 전문 작가가 되어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여성독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문학적 규범이나 그 이해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과거에 대한 낭만적 향수와 동경, 일상적 관찰과 사색을 통한 개성의 발견과 성장이라는 감수성의 영역에서는 전부 포획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전문적인 여성 작가로서의 삶이 있었던 것이다.

4.3. 아마추어 여성작가의 등장과 상업적 성공

여성독자의 문학적 감수성 또는 센티멘털리즘은 이들이 문단에 진출하여 창작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로 간주되었던 반면, 상업적 출판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문화소비자로서의 여성적 취향으로 특화되었다. 이들은 본격문학과와의 관계에서 하위문학으로 위계화되었지만, 여전히 출판시장 내의 영향력 있는 문화소비자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문예취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소설형식을 탄생시켰다. 가령, 아마추어 여대생 작가의 연애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⁴²⁾, 이후 이와 유사한 비전문적 여성작가들의 연애소설이 꾸준히 출판계의 고정적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은 여성독자들의 문예취향이 본격문학에 포함될 수 없는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저평가되었던 것과는 별개로 이미 출판시장의 한 영역을 차

42) 1959년 11월, 이화여대 국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희숙(崔姬淑)은 자신의 연애경험을 성장의 서사로 재구성한 『슬픔은 강물처럼』(신태양사)을 출간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다. 그녀는 명동의 유명한 다방(문예싸롱, 돌체 등)을 전전하며 문학과 예술을 탐닉하는 동년배의 대학생들과 연애를 하기도 하고, 소설가나 시인을 만나 문학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한다. 그녀는 대학 1학년 때 『여원』의 현상문예공모에 시 「반월」이 가작으로 당선된 것 이외에는 전혀 문단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 아마추어 작가였다. - 양평, 『베스트셀러이야기』, 우석, 1985.

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신의 자전적 연애담을 소설로 발표한 여대생 소설의 광고가 “한국의 싸강, 최희숙”이라는 문구로 제시되었던 사실은 여성독자의 취향이 이미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1955년 『슬픔이여, 안녕』의 번역을 시작으로 국내에 소개된 사강의 소설은 이후 후속작이 발표되자마자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국내 독자층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독자층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여원에서 번역 소개한 사강의 세 번째 소설에 대한 독자의 감사인사, 『슬픔이여 안녕』이 5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히고 있었다는 사실, 사강의 결혼과 이혼, 재혼 소식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가십거리조차 일간신문에서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사강의 소설과 사강이라는 인물에 대한 국내 여성독자들의 관심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강의 소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사실적 묘사 특히, 성과 연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당대 독자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주었다. 발달하고 사실적인 연애의 묘사와 육체적 정신적 사랑에 대한 사실적 묘사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의 발견을 통해 내면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성장서사로 완성하고 있는 것은 여성독자들에게 새롭고도 매력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유사 사강’을 필요로 했던 출판시장은,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교양과 지성을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선망과 비난의 시선이 착용된 양가적 위치에 있었던 여대생 필자를 등장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아마추어 여대생 작가의 소설은 여성의 연애와 성 문제를 작품의 주요 서사로 선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공식적인 등단제도(신춘문예나 추천제)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비껴서 ‘스스로’ 작가가 되었다. 이들의 소설이 작품의 수준을 이유로 문단과 평단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화계와 독서계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상업적 출판자본과 여성독자 대중의 욕망이 결합하여 출판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5. 결론을 대신하여 : 여성의 글쓰기, 그 통제와 균열의 지점

사적영역 또는 가정공간에 대한 발견과 의미부여, 이상적 가정여성 모델(현대적 현모양처)의 구상이라는 여성교양의 구체적 항목들은 문예를 통해 기획되었다. 이러한 여성교양이 현모양처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한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문예를 매개로 한 사회적 진출을 꿈꾸게 하였고, 사적 경험의 공적 발화가 갖는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는 독자들 사이에 문예를 매개로 한 팬덤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독자들의 독자·문예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여성들이 이전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사회적 경험이었다. 그 결과, 자신의 자전적 연애와 결혼담을 소재로 한 아마추어 작가들의 소설이 출간되기에 이르렀고 이들 소설은 상업적 성공과 함께 여성독자를 주요 소비층으로 하는 대중문학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의 칙릿문학의 원류격이라 할 수 있는センチ멘털한 연애담과 낭만적 사랑의 과장·미화, 패션과 유행의 소비를 통한 주체화의 경험 등 여성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대중문학이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문학과 예술을 강조한 여성교양담론에 기대어 출발했으나 여성독자의 욕망이 이러한 담론적 권위에 균열을 일으킨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 여성독자의 문학규범 형성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3)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등장과 작품의 구체적 분석은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vol.24, 2010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원』

『주부생활』

2. 단행본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양평, 『베스트셀러이야기』, 우석, 1985.

이한국 편저, 『1957년도 출판연람』, 대한출판연람사, 1957.

정진성,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8.

안 배상 뷔포, 이자경 역, 『눈물의 역사 : 18-19세기』, 동문선, 2000.

3. 논문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No.18, 2006, 107-137면.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No.22, 2010, 205-230면.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No.34, 2009, 49-69면.

- _____,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 과교육학회』, Vol.19, No.4, 2007. 12, 137-151면.
- 김혜수, 『1950년대 한국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외대사학』 vol.12, 2000, 435-451면.
-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vol.30, 2010, 345-375면.
-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 vol.40, 2010, 7-39면.
- 소영현, 『근대 인쇄매체와 수양론 · 교양론 · 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No.18, 2006, 196-229면.
- _____, 『교양론과 출판문화-교양의 제도화와 출판문화로 본 교양붐』, 『현대문학의 연구』vol.42, 2010, 7-48면.
-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vol.29, 2010, 261-305면.
- _____,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 10.
-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008. 6, 51-81면.
- _____,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 『상허학보』 No.25, 2009, 235-273면.
- 이선옥, 『『여원』의 중심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화학회, 『여성문학연구』 vol.19, 2008, 337-369면.
- _____, 『195,60년대 『여원』 ‘여류현상문예’와 교양 · 과학화 담론』,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1. 6.
- 이임하,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제122집, 연세대학교학연구소, 2003, 293-327면.
-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의

- 구성, 『史叢』 67호, 역사학연구회, 2008, 53-102면.
- 조경원·이배용,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 『한국교육학사』 제22권 22호, 2000, 12, 26-283면.
-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vol.24, 2010, 87-118면.
-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화사연구』 40호, 2009, 91-133면.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vol.18, 2007, 12. 119-153면.
- 허 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여성문학연구』 vol.21, 2009, 93-124면.

AbstractCognizance of American civilization in 1950's and Discussion of
Woman's Bildung

Yunkyung Kim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American civilization and Discussion of Woman's Bildung in 1950's. As population who can read and write increased, printe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became a mass media from the exclusive property for a small number of intellectuals. Such increase of people's literac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women especially. The concern and expectation of women readers focused on novel and other literature sectors and in addition to their preference on literature readings, they actively participated events like subscribing reader's notes, reader's literature class, reader's literature competition and women's literature competition and composed communal indemnity through the magazines. Women's magazines introduced to write poems and novels liasing their comtemporary famous authors and literary people and commissioned public measurement for poems, novels and essays written by their readers. Such lectures by literary people and public literature measurement were exclusively seen in the women's magazines and it was result of influences of readings according to increase of women readers and feminization of writing to publishing market in 1950's.

Key words : 1950's, American Civilization, Culture Elite, Woman's Bildung, domestic woman, women readers, community of literature, women's magazine, literature norm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